

건설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 허리띠 졸라매기 본격화되나

조 철 현 |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차장

건설업계에 거센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중소·중견 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연말연시를 맞아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조직 개편은 물론 잉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작업도 한창이다.

건설업계에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닥치면서 정든 회사를 떠나는 임직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업체에 따라 정리되는 인원은 다르지만 규모 면에서 예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의 임원들을 내보내는 업체도 있다. 구조조정의 강도가 상상 이상인 것이다. 이처럼 구조조정 수위가 높아진 것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공사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일감 부족도 업체가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

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년 의례적으로 해오던 구조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늘면서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구조조정 '한파' 매섭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 및 설계·엔지니어링 등 건설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 부진과 일감 부족 등으로 건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업체들이 조직 재정비를 통한 인원 감축에 본격 나선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설계·엔지니어링 업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이제는 종합·전문 건설업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종합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 연말

을 맞아 임원의 50% 가량을 내보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B사는 임원 20%를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을 받았다. 건설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공공 및 주택 부문 축소, 해외 부문 확대' 방향으로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는 대형 업체도 적지 않다. 구조조정을 앞둔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대체 현상이 크게 줄면서 내부적으로 인력 감축설이 나돌아 좌불안석"이라며, "중견이나 중소 건설업체는 상황이 더 어려워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 나올 건설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사업 기획·타당성 조사·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시공 이전 단계 업무를 담당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 부는 구조조정 한파는 더 매섭다. 구

경영 정보

조조정에 나서지 않은 업체가 거의 없고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상위 15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합산 직원 수는 1만 4,2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명 가량 줄었다. 도화엔지니어링이 1년 새 160여 명 늘어난 것을 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을 줄인 것이다. 한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인사팀은 직원 고용보다 퇴직 업무 처리하느라 바빴을 정도로 인력 조정 폭이 컸다”고 말했다.

한 대형 설계업체 관계자는 “대형사에서 나온 건축가들이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예전 같으면 대형사 출신을 스카우트하려고 줄을 섰지만 요즘엔 직장 구하기가 별 따기”라고 전했다. 설계업체의 경영 상황은 건설업계의 바로미터다. 공공 또는 민간 분야에서 발주 물량이 많아지면 설계업체가 호황을 맞고, 설계업체의 호황은 시공사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설계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토목 담당 임원은 “설계업체들이 힘들다는 것은 건설업체에 향후 일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설계업체는 건설업의 6개월~1년 정도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 경기는 무척 어려

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갈수록 경영 악화... 구조조정 강도 높아져

구조조정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경영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공공사 발주 물량은 갈수록 줄고,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회수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이 붕괴 위기로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감(먹거리) 감소다. 국내 건설공사 물량은 2007년 127조 9,000억원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줄고 있다.

먹거리 감소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체의 공간을 책임졌던 주택사업은 이미 ‘찬밥 신세’가 되지 오래다.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지방 일부 지역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건설업계 일감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공공사 발주 물량도 급감하고 있다. 일감이 줄면 건설 기성도 줄면서 회사의 자금 흐름이 왜곡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매출액은 대부분 전년보다 20~30% 가량 줄었다. 중소 업체들

이 피부로 느끼는 수주 감소 폭은 30~40%대로 훨씬 큰 편이다.

여기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현장에 투입됐던 건설 인력들이 한꺼번에 본사로 몰려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 현장에서 돌아오는 인력만 4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 관리·기술직, 기능·일용직 등 건설 인력만도 하루 평균 1만 1,558명에 달한다.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급감한 탓에 4대강 투입 인력이 복귀해도 새로 투입할 마땅한 현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인력 감축이다. 한 대형 건설업계 임원은 “신규 현장 부족으로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돌아오는 인력들을 투입할 곳이 마땅찮다”며, “수자원 분야와 토목공사 기술자 상당수는 대거 발령 대기 상태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중견 건설업체 C사의 경우 4대강 현장에서 돌아온 인력들이 대체 현장으로 재배치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인력 감축설이 돌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신규 현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장 인원들이 내부에서 보직을 맡지 못해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올해가 더 문제... 대책 없나

올해도 건설업계에 구조조정의 그늘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건설업을 둘러싼 고용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 부진 및 공급 물량 감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금 조달 단기화, PF 우발채무의 현실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유통성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SOC 예산은 총 21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23조 1,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7.2%)이 줄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SOC 예산을 깎았고, 편성된 예산만

저 공사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추가 삭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SOC 예산 감소가 공공공사 발주 물량 축소로 이어져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SOC 예산마저 축소되면서 올해에는 건설사들의 감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고용 환경이 더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는 외국 수주 확대로 인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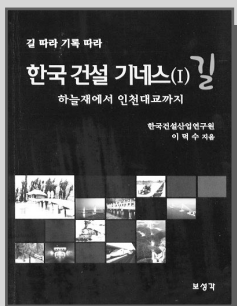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와 그에 따른 고강도 구조조정은 건설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팀장은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과 선택이 없이는 현재의 ‘건설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금융 당국의 유통성 있는 PF 운용,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경제 규모에서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으로 허약한 건설업계의 경쟁력 체계를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건설업계에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에 따라 얽히고설킨 규제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 재정비하면서 대내외적 시장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ERIK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최근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